

감리교사태 - 김국도 목사 지지자들“세상법 감독회장 세울 수 없어”



법원이 고수철 목사를 손들어줌으로 감리교 감독회장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김국도 목사 지지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거세게 반발해, 감리교가 당분간 쟁쟁어열을 것으로 보인다.

감회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국도 목사를 지지했던 목사들 중 20여명은 8일 오전 광화문 감리교 본부 16층 사무

실에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교회법에 의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구 사회법으로 가서 감리교 교단법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세상법으로 감독회장을 세울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론했다. 또한 이들은 “교단 문제를 교단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면서 “누가 감독회장이 되든 재선거를 통해 민심을 얻는 사람이 돼야 감리교에 새 희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화교회 임상일 목사는 고수철 감독회장에게 “20%밖에 득표하지 못한 사람을 전국의 감리교인들이 감독회장으로 인정하겠느냐”면서 “누가 (당신을) 감독회장으로 인정했는지 말하라”고 다그쳐 묻기도 했다.

하지만 고수철 감독회장은 아무답변도 하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 예정된 행사를 위해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점심시간에 합류한 몇몇 전임 감독들과

의견을 나눈 뒤, 자정에서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회춘 목사는 “점심 때 함께 모여 중지를 모았으며, ‘감리교가 조속히 정상화가 돼야겠다’는 생각에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동의했다”면서 “감독회장이 권한을 주장하려면 확정판결이 된 후에 주장을 해야지 거처된 상태에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임연희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이 있고 장정을 임명했을 때마다 다 수정하고 보존해오는데 교회법은 온데 간데없고 일부분의 가치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면서 “감리교회의 영적 권위와 교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기로 한 전직 감독이 12명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낯모임 참석자에 대해서도 몇 명이 모였다고 어떤 이들이 모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회피했다. 한편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국도 목사 측은 이번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고, 지난 12월 ‘김국도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고수철 목사의 즉시 항고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민사50부는 이전에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 자격 없음’을 결정한 법원이기 때문에, 6일의 결정은 예상된 것이고 따라서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즉시 항고 결과 고수철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받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게 김 목사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국도 목사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기자회견이든 문서로든 발표할 것으로 본다.

한복협 “희망과 빛을 주는 새해가 되길”



한복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는 새해 첫 월례 조찬기도회를 열고, ‘새해의 소망과 기도’회를 가졌으며, 경제 위기로 한 해를 시작한 만큼 발제자들은 한국교회에 이러한 어려움을 영성 회복과 도덕성 회복 및 연합과 일치로 극복해야 할 것을 다짐했다.

9일 서울 화평교회 (안만수 목사)에서 열린 월례 발표회에서 발제자들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희망과 빛을 주는 교회의 역할을 새해 소망과 기도제목으로 삼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는 △연합과 일치, △영성 회복, △도덕성 회복, △새해 소망과 기도, △새해의 소망과 기도, △소망을 한국교회의 소망과 기도제목으로 선정한 손인웅 목사는 한국교회에 다시 한 번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손인웅 목사는 특히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성

경에서 가르치는 복의 개념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라며 “우리가 채우는 목적은 영원토록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요,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운안교회 이수영 목사도 “나눔의 경제 회복”을 구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기적인 탐욕을 버리고 기도해야 한다”며 “오늘 우리에게 일임할 양식을 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자”고 발표했다. 새해에는 한국교회가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것도 발제자들이 품은 새해 소망과 기도제목이었다. 손인웅 목사는 “각종 이단 사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본질을 흐리는 지금의 황폐해가는 교회 영성이 회복돼야 한다”

며 “한국교회에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믿음’과 ‘행함’이 복음의 온전성과 통전성을 이루는 두 축임을 기억하고 도덕적 우위를 보여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수영 목사 역시 “한국교회의 변화와 그리스도인의 성숙으로 갈수록 커진 사회와의 거리가 좁혀지기를 소망한다”며 “악과 타협하지 않되 이 세상을 품고 섬기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가 영적인 각성과 성숙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 전통역대 총장 손봉호 장로의 발제와 응답으로 이어졌다.

KT 메가TV 실시간채널

C3TV 선정 감사예배

기독교 미디어의 미래 C3TV 앞장서 갑니다

ch.551

〈C3TV〉 KT 메가TV 실시간채널 단독선정 감사예배 개최

기독교 뉴미디어의 선두주자, 기독교복음방송 C3TV(대표 인명진 목사)는 12월 26일(금)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메가TV 실시간 기독교채널 선정 감사예배’(부제: 기독교 방송선교의 미래, C3TV를 드림)다. 사회에는 김은호목사(오분교회 담임목사), 설교에는 이광선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중경총회장), 축도는 박선희 목사(소망교회 원로목사)가 맡았으며, 교제 유력인사, 언론사, KT관계자

들이 참석하여 기독교채널 단독선정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광선 목사는 “달라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현재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마추는 총체적 위기는 물질의 빈곤이 아닌 말씀의 기갈이 원인이라며 C3TV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도구가 되어주길 바라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진리를 진정으로 표현하는 매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축사에서 권오성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C3TV의 이번 일은 C3TV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 전체의 성공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1997년 개국하여 개국 11주년을 맞은 C3TV는 기독교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현재 케이블TV, IPTV, 해외 위성, RO,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독교방송을 송출하여 방송선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사청문의: 02-3219-5501)

“1구좌 1만원 후원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농협 계좌 455030-56-005509 (예금주: 정기남)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교육기관 한기총에 가입된 40년 전통의 예장(웨신) 총회인준 신학교 2009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1. 모집학과 · 입학자격

과 정	학 과	학 제	인 원	입 학 자 격
평신도부	평신도아카데미	2년제	00명	사명자 및 직분자
신학부	신학과 · 목회학과 · 선교학과 · 통신신학과	4년	00명	고졸자, 동등학력 소지자 세례 받은자
석 · 박사	목회학석사(M.Div)	3년	00명	신학교졸업자 학사 소지자
	신학석사(Th.M)	2년	00명	학사 소지자 M.Div과정 졸업자
	목회학박사(D.Min) 선교학박사(D.Miss) 신학박사(Th.D)	3년	00명	목사안수 후 3년이상 목회 경력자

2. 모집일정

• 모집기간 : 08년 12월 1일(월)~09년 2월 27일(금)일17:00

• 원서접수 : 본교 행정실

• 전형일시 : 현재 면접과 서류전형 (신앙과 인격중시)

• 전형장소 : 본교 대강의실

• 문 의 : 행정실(☎02-2691-3920)로 상담

미국문부성, 주정부, 대학협의회 인가 대학교

미국 명문신학대학원 학생 모집

선교학 석사(M.A.) 및 박사(D.Miss)

3.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1부

② 추천서(본교 소정양식)1부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부

④ 주민등록 등본(3개월이내)1부

⑤ 여권 사진(3cm×4cm)3매

⑥ 졸업 또는 제적증명서(편입생)1부

⑦ 성적증명서(편입생)1부

4. 특 전

• 목회학석사 과정(M.Div)은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강도사 고시후, 목사안수를 받음.

• 졸업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총회 해외선교사 파송, 재학중 교단 산하 각 교회 전도사 파송.

• 석 · 박사 과정은 미국 명문신학대학원과 연계하여 미국 본교와 호주 시드니에서 계절학기로 강의하며 박사학위 취득지는 한국개혁신학연구원 교수로 채용함.

• 통신학과(신학부 · 대학원) 과정은 나이?학력제한 없고 능력별 졸업 및 본과 3학년에 편입.

• 평신도아카데미 졸업자는 신학부 2학년에 편입하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

학장 장관섭 박사

한국개혁 신학연구원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 158-09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982-3번지 신월빌딩 5층

대표전화 02-2691~3920

홈페이지 http://reformedacademy.org

